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2호 (부제 제23294호) 주제99 (2010)년 12월 8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에 화답하여 더 빨리 내달리자

김철이 주체화의 통장훈을 부르고 혁명적대진격의 우렁찬 포성을 울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을 계속 울리면서 주체화에 의한 철생산방법을 완성한것은 주체화의 위대한 승리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기운차게 내달려있는 김철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셨다.

지금 김철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새해 정초부터 한해가 지루는 12월까지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강성대국건설대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뜨거운 격정속에 우러르고있으며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에 화답하여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세의 불길속에서 더욱 세차게 일어나갈 불라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주체화의 위대한 수령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다. 김철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철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농업전선을 쫓게 하는 화선식정치사업

황해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

나라의 위대한 목장지대인 황해남도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열 앞장에서 대박이, 대혁신을 이룩해나갈것을 바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당위원회에서는 각급 당조직 일꾼들이 농업근로자들에 속하여 들어가 그들을 알뜰중심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리게 하고있다.

당위원회책임일꾼은 농업생산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당안의 근로자들의 열의와 열정을 고무하고 그들을 알뜰중심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또 온 열매농사를 빛나게 결속하는 것과 함께 다음해농사차비에 들어간 재력군 매립협동농장, 은물군 장련협동농장

10작업반에 나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대중의 정서선을 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위원회 각 부서의 일꾼들은 시, 군의 협동농장들을 돌고 내러가 정치사업을 전두적으로 진행하였다.

당위원회 전진선진부에서는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여 황남대에 사회주의만들기에서 더 높이 올려라 하는 내용이 담긴 강연자료와 해설담화자료를 만들어 아예당조직들을 돌고 내주었다. 그리고 부서의 일꾼들이 웅건 총협협동농장을 비롯한 연선지대 협동농장들이 나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다음해농사차비를 다그치면서 강연선진활동용 진공적으로 불러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당위원회 다른 부서에서도 일꾼들을 여러 협동농

장들에 파견하여 농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선진활동과 해설담화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게 하고있다.

도안의 당일꾼들만이 아니라 선진농촌들도 혁명의 열매에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해설담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정에서는 유가질복합비료생산에 필요한 원료확보에 애를 써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에 대한 애정을 높여주고 있다.

협회는 정치사업에 고무된 안락군협동농장정영위원회 일꾼들이 농노사의 기본인 물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펴고있다. 군관개관리소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협동농장농업근로자들이 힘을 합쳐 조배된 관내 대형양수관들을 정비해제하고 필요한 자재를 자체로 마련하면서 양수관제작에 달려붙었다. 군일꾼들은 우렁이에 의한 농노사범, 붉은 눈알기생벌과 식물성농약에 의한 농작물의 병해충구제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단행하고있다.

도안의 전진적인 협동농장들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사업들이 포진되어 있다.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선진선진활동용 활발히 벌이고있으며 지난 시기보다 기열을 앞당겨 열매농사를 마무리하고 다음해농사차비를 다그치고있는 농업근로자들의 양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농업근로자들을 알뜰중심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그들이 강성대국건설의 불길로 열어나가는데 한몫 담당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최근 농업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황해남도의 알뜰중심을 높일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셨다.

에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대고조전투장의 새 소식 물길굴 전구간을 성과적으로 관통

희천 발전소 건설장에서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혁신의 새 소식이 또다시 전해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물길굴공사물길굴은 군인건설자들과 성, 중앙기관, 각 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이 수천km의 물길굴을 전부 완수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물길굴확장공사와 피복공사도 힘있게 추진되어 물길굴공사를 기한전에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얻어놓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대진격을 가지고 물길굴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현장지휘부일꾼들은 물길굴공사에서 높은 건설속도를 창조할 비상한 각오밑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고 대중을 새로운 위용창조제로 불러일으켰다.

당의 부름을 받고 공사장에 달려온 군인건설자들과 성, 중앙기관, 각 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은 물길굴공사물길굴을 기한전에 끝낼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첫 전투부터

드센 공격전을 벌리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작업자들을 편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고 광립산줄기에 작업장일구단원참가를 위한 첫 발파의 장쾌한 포성을 울리었다. 군인건설자들이 물길굴공사에서 영웅적대진격의 돌격속도, 일당백속도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지난 기간 중앙대상전에서 군위부대의 영예를 떨쳐온 조선인민군 김용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최고수평기를 펼칠 활달히 군사적인 투쟁을 벌려 공사에 집중한 때로부터 불과 1년도 못되는 사이에 물길굴을 관통시키고 6개월만에 물길굴확장공사와 피복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인민내무군 홍순철소속부대와 환경군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기본물길굴을 성과적으로 관통한데 이어 광화강공사와 피복공사를 동시에 내밀며 공사장마다에서 군인배, 군인기열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성, 중앙기관과 각 도려단들은 돌격대원들이 높은 건설속도를 창조하며 물길굴공사를 힘있게 다그쳤다.

본사기자 정성일

올해 인민경제계획 빛나게 수행

보건성에서

당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올해에 보건성에서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해보다 높아진 의약품, 의료기구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자랑찬 성과는 뜻깊은 올해를 빛나는 보건의성으로 빛내이려는 보건의성인민들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 결사투쟁의 정신이 밝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넘쳐히 보장해주자면 의약품과 의료기구생산을 정상화하며 제약 및 의료기구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벽히하여 의약품과 의료기구생산을 높여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 전투를 시작하면서 보건성에서는 무력적투쟁을 비롯한 인민적인 보건의성들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더 잘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대중약품과 상비약품, 주요의료기구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전투목표수행을 위해 보건의성의 책임일꾼들은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데 적극적인 힘을 넣으면서 의약품생산발달의 앞날을 내다보는 혁신적인 인력과 작전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 자재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보건의성이 아니라 각지의 의약품, 의료기구생산단위들의 일꾼들도 생산현장을 타고다 생산자대중의 정서를 타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보건의성 제약공업관리국과 고려약생산관리국, 의료기구공업관리국과 아예생산공장들의 일꾼들은 생산이 다양화되는 현실조건에 맞게 능동적인 전투지휘로 생산자대중의 높은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이에 고무된 각지의 의약품, 의료기구생산자들은 생산실비들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면서 생산정성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었다.

중요제약기종인 홍남과 순천, 신의주 등지에서 최첨단을 파견이 힘있게 벌여졌다. 그리

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 자재들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고 향상소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이 돌파되었다.

보건의성에서는 순천, 홍남의 제약공장과 신의주에서 성공장, 평천, 서성고려약공, 강계의 고려약공장과 고려약가공공장, 만경대전공공장, 향산, 개성 등지의 의료기구공장들의 도면을 전국의 의약품, 의료기구생산단위에 적극 일반화하면서 더 높은 생산성으로 힘있게 떠밀었다.

자신만만한 기세로 정초부터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온 보건의성의 일꾼들과 생산자들은 긴장한 전투를 벌려 올해 자기들이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보건의성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었다.

전국의 보건의성의 일꾼들과 생산자들은 올해전투결과와 다음해생산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2. 8 직동청년단에서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

8명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운반대통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기어이 수행할 열의에 따라 생산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이런 선진 전투를 벌려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1명의 일꾼들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도입하여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고 일생산 및 석탄총화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높여 발휘하도록 하고있다.

석탄생산이 높아지는데 맞게 탄부의 책임일꾼들은 참모부서들의 역할을 높여 생산조직과 지휘를 더욱 전투적으로 짜고들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 본사기자 정성일

비범한 정치실력으로 안아온 민족번영의 전성기

날에 날마다 천만민민의 가슴을 환희와 격동으로 열어보게 한 뜻 깊은 이배가 바야흐로 저물어간다. 위대한 현실은 충격적인 여운을 남기며 가라앉는다.

격동적인 사변들로 세계를 진감시킨 선군조선의 2010년, 정초부터 최첨단, 강성대국 건설 열풍을 일으켜 우리 당과 인민은 얼마나 많은 일을 자랑스럽게 해놓았는가.

부강조선건설사에서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최상의 경지에서 펼친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뇌리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격동의 해, 비범한 정치실력으로 우리 조국을 높게 하고 세계를 경탄시키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어주신 선군혁명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위대한 승리가 있다.

일찍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높이 칭송하신 그대로 조선의 장창한 미래이시며 모든 성공과 승리의 위대한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2010년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정치원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격동적인 올해의 눈부신 승리가 있기에 보다 위창찬한 선군조선의 메일이 있기를 실증한 정년 있을 수 없는 해이다.

승전고를 높이 울리는 혁명에는 반드시 위대한 기상이 나뉘었다. 《조선에서 거대한 힘이 분출하고 있다.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적이다. 이것은 조선은 결심하면 반드시 해낸다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에 뿌리를 둔 비범한 기상이다.》

세상사람들은 오늘의 선군조선을 가리켜 이렇게 경탄하고 있다. 비범한 기상.

이 짧은 말속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대진에서 기적적인 성공담을 높이 쌓아가고있는 선군조선의 오늘이 집약되어 있다.

나는 한다면 거이 해낸다. 누구도 나의 이 기질을 꺾지 못한다! 민족의 기개를 만방에 떨치는 선군정치의 나날 이런 위대한 선언으로 천하를 뒤집어엎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무적불패의 기상이 내재하고 있다. 단숨에 산도 허물게 하는 힘이 용솟음치게 하며 원수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위대한 천품.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사변들로 충만된 뜻 깊은 올해는 천하제일명장의 이 비상한 신념과 의지가 최대로 파시된 참으로 격동적인 해이다.

고난과 시련의 명적정부를 휘황찬란한 이상으로 밀어부리고 반만년민족사, 선군혁명사의 전환적

문을 열어제긴 2010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고한 투쟁속에서 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서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경제가 활기를 띠고 하나 하나 일떠서게 되었으며 가까운 앞날에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의 령도가 있고 훌륭한 인민이 있는 한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이 땅위에 반드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합니다.》

뜨거운 추억의 날과 날들이 떠오르는 이 시각 어찌하여 우리 천만민민의 가슴에 올해 정초 최첨단의 눈바람이 회오리치는 것인가. 밖에 잠깐 서있어도 온몸이 얼어드는 북방의 1월이었다.

하지만 강성대국건설에서 역사적 사변을 터친 해, 어버이수령님의 리상 실현에서 분수령을 이룰 뜻 깊은 해에 온 나라에 대고조의 열풍을 일으킬 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슴에서는 용암이 이글거리는 듯 하였다.

그 위대한 애국 충정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의 땅 회천에서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첨 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여야 한다. 오늘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은 최첨발전소건설장이다.

올해 1월 최첨단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지지도는 보라. 우리 당의 결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위에, 이 하늘 아래 인민의 지상낙원을 일떠세우고 있는가를 보여준 불세출의 혁명가의 거룩한 증거였다.

그 승업한 기상은 온 나라에 수령님 유훈 관철의 바람, 애국충정의 열풍이 다 활활 타번지게 하며 그 어떤 대군도 당해낼수 없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천만의 심장을 여세게 불어넣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영원한 전사, 제자일인 인민, 우리 수령님께서 위대한 심장을 불태우시며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주시던 우리 인민을 세상에 제일 잘살게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정성. 애오라지 부강조선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장군님과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하며 온 나라 강성대국건설장마다에서는 날고그대로 대기계화군단의 기상이 나뉘었다.

회천땅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눈보라강행군속에서 무한히 고무되어 공적들을 벌리던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또다시 격동시킨 사변이 일어났다.

북방의 최첨단에서 기적의 열풍을 일으킨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로정이 회천과 멀리 떨어져있는 제령땅에 이어진 사실이 그 다음날에 보도되었던 것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길에서 올해를 획기적인 변혁의 해로 빛내일 천출명장의 기상으로 사배계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맞받아 총횡무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은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시는 일원단심의 상징이었다.

선군혁명위업을 총폭력 전진시키고 강성대국의 해돋이를 불러오시는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의 비상한 열정의 무한한 원천은 자나깨나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시는 숭고한 의의이다.

오늘의 세계에 성스러운 도덕의 리의 성세를 가장 높이 세우시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할 존엄과 더불어 우리 조국을 끝없이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한 길을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걸으시는 심정에서 쌓으신 성과도 제일먼저 수령님께 삼가 보고드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이런 열화같은 충정으로 올해 2월에도 함흥땅을 찾기도 찾지도 않고서도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발문속에 뜨거운 정을 부으시며 마음속으로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신심초초도 울리는 순결한 량심과 의리의 세계였다.

불멸할 화복을 주러드는 온 나라에 눈물의 파도가 격양했다. 《아 어버이장군님,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버이수령님의 영혼을 꽃피우시려는 장군님의 결사의 의지를 장군님의 충직한 인민인 우리는 수뇌부결사옹위의 신념과 투지로 받들겠습니다.》

이것은 천만민민의 심정의 목소리였으며 조선의 기상이었다. 인간 상상을 초월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상한 초강도 강행군을 계기로 강성대국건설전투장마다에서 어떻게 하나 올해 승리의 통장훈을 부를 기운이 더욱 배배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완강한 실력으로 1월과 2월의 날과 날을 뜨겁게 수놓으셨다. 그 거룩한 모습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다같이 심장으로 걸갈았다.

어버이수령님의 영혼을 꽃피우는 성스러운 위업에서 뜻 깊은 올해에 미증유의 기적을 창조하려는 백두명장의 드높지 않는 철의 의지를, 백철불굴의 정신력, 원대한 목표물과의 의지로 전당, 전군, 전민을 올해의 총진군으로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할 업적.

참으로 2010년의 1월과 2월이 안아온 현실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류례없는 것이며 그 의의와 생활력에 있어서 비할바없이 경이적이다.

바로 여기에 강성대국건설사에서 사변적의를 가지는 2010년의 첫 기슭, 승리와 영광의 대추진장과 잇닿은 1월과 2월이 가지는 력사적의의가 있다.

누구도 상상할수 없고 해낼수 없는 거창한 선군혁명위업을 멀리 전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백두산총대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안아온 특출한 승리이다.

돌이켜보면 올해의 세계정치정세는 얼마나 복잡했는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년이 되는 2012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길 웅대한 리상을 앞세우고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 낮이나 밤이나 대고조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우리 조국에 대한 적들의 침략책동은 온 한해 매일, 매 시각 벌어졌다.

그때마다 선군혁명의를 일깨워 더 거세게 타번지게 하여 침략자들 들뜬 적들을 제압하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올해에 이룩하신 업적중 위대한 업적이다.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무비의 단력과 기상으로 온 한해 련속 천막의 무리들을 기철초초하게 하신 백전로장 김정일동지!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 제105명포사단장관 조분대사참, 특혜공공합동훈련지도자...

이해의 사나운 눈보라결에서 시작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는 행성을 들었다놓았다. 우리 당과 인민의 공동의 의사가 반영된 결심을 무조건 관철하고야 마는 천만민민의 신념을 만장약시하며 침략자격멸의 총대를 더 힘차게 틀어잡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선군의 위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영예로운 자주적군위병, 자주적인민으로 당당히 내세워주시고 주체의 궤도를 따라 확신있게 줄달음치게 해주시었으며 거창한 사변들로 세계정치계를 련속 경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선군조선에서 적을 제압하면 다른 모든 전선에서 승리할수 있다! 내가 총대를 중시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 나라는 끄떡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당으로 올해 우리는 혁명고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희한한 성과를 안아올렸는가.

온 나라를 환희로 열어보게 한 비발문폭포에 이어 황철의 초고전투정기전에서 호르는 장쾌한 철의 흐름, 현대적인 원호식련속조끼가

에서 강재들이 쉬임없이 쏟아져나오는 김철의 희한한 소식, 비약의 풍마를 타고 추기치는 내 조국의 벅찬 기상을 파시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개신청년공원, 우리 인민들에게 만복이 차재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락관을 안겨주며 주체비료를 높이높이 쌓는 대화학기지 소식, 유압구주장기의 CNC화를 훌륭히 실현한 락원의 소식, 대계도의 기적...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위대한 유산인 우리 사회주의가 어떻게 날로 승승장구하는가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아오시는 강성대국의 령명이 어떻게 더욱 찬란히 밝아오는가를 실증한 경사의 해.

뜻 깊은 올해 도처에서 울린 승리의 개가들은 모든것이 흥하는 강성대국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해주는 벅찬 성과들이 아니던가.

그것을 올해 변혁들을 돌이켜보는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우리에게 부러울 없는 만복을 안겨주겠는가 하는 일념이 자각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할 굳은 각오를 가지게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도 이룩할수 없는 불멸의 영웅사사적업적을 높이높이 쌓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떠나 그 어떤 애국도 혁명도 없다는 정치리념을 앞세우시고 운명도 희망도 미래도 다 맡아 천만민민을 천천천의 정으로 보호해주고 보살펴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오직 그이만을 믿고 그이를 따르는 길에 민족의 존엄과 빛나고 만복도 있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터득하는 나날에 자기의 령도자에 대한 신념을 굳건히 다져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법명이 실현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

9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치던 강렬한 사상감정의 폭발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위업은 필승불패며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새겨진 대우를 깨우쳐 사변들로 세계정치계를 련속 경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선군조선에서 적을 제압하면 다른 모든 전선에서 승리할수 있다! 내가 총대를 중시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 나라는 끄떡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당으로 올해 우리는 혁명고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희한한 성과를 안아올렸는가.

온 나라를 환희로 열어보게 한 비발문폭포에 이어 황철의 초고전투정기전에서 호르는 장쾌한 철의 흐름, 현대적인 원호식련속조끼가

다함없는 환호성이 지금도 메아리쳐 들려온다.

우리 인민 모두가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열화같이 흥모하고 따르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

강철의 혁명무력의 항도적력량, 천만민민의 운명의 보호자, 강성번영의 창조자 조선로동당의 진두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였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은 천세만세 길이 빛날것이라는 확신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킨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였다.

피에 절은 가시덤불길, 가슴미어지는 시련의 길,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기로의 순간들을 제법한 인민만이 이런 환희의 사상감정을 분출할수 있다.

인민이 사랑하며 즐거부르는 한편의 노래를 들으시면서도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이라고. 늘 야전복차림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우리에게 부러울 없는 만복을 안겨주겠는가 하는 일념이 자각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할 굳은 각오를 가지게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도 이룩할수 없는 불멸의 영웅사사적업적을 높이높이 쌓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떠나 그 어떤 애국도 혁명도 없다는 정치리념을 앞세우시고 운명도 희망도 미래도 다 맡아 천만민민을 천천천의 정으로 보호해주고 보살펴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오직 그이만을 믿고 그이를 따르는 길에 민족의 존엄과 빛나고 만복도 있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터득하는 나날에 자기의 령도자에 대한 신념을 굳건히 다져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법명이 실현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

9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치던 강렬한 사상감정의 폭발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위업은 필승불패며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새겨진 대우를 깨우쳐 사변들로 세계정치계를 련속 경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선군조선에서 적을 제압하면 다른 모든 전선에서 승리할수 있다! 내가 총대를 중시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 나라는 끄떡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당으로 올해 우리는 혁명고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희한한 성과를 안아올렸는가.

온 나라를 환희로 열어보게 한 비발문폭포에 이어 황철의 초고전투정기전에서 호르는 장쾌한 철의 흐름, 현대적인 원호식련속조끼가

위대한 승리를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확고부동한 신념이 얼마나 맥떡히 끊어지셨던가.

최첨단을 들과한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파시하는 기계화총대들이 지옥을 울리며 전진하는 장쾌한 흐름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신념과 배짱, 백두산악같은 기상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는 오열도 사무치게 절감하게 하는 오성신의 칼바람길...

참으로 조선은 결심하면 그 무엇이든 다 할수 있고 우리를 견디려는 원수들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내외에 널리 시위한 당창건 65돐경축 일병식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로동당은 어찌 오늘도 레일도 영원히 승리하고 민족의 존엄은 만방에 떨치며 강성대국건설은 확정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힘있게 선언한 2010년.

그렇다. 선군을 반석같은 토대로 하여 일떠세우는 강성부흥의 성세는 끄떡없다.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 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다져오신 강성부흥의 성세인 선군은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지름길이다. 위대한 승리가 우리 천만민민을 부른다.

목표가 아무리 방대하여도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시며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경사로운 사변들로 충만된 이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시각에도 어버이수령님의 리상 실현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칼바람을 헤치시며 강행군 길을 걸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세출의 혁명가들의 용용한 대오가 빛나는 나라는 영원히 승리하며 부강번영한다.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흥신번영하는 시대로 될것이라고 확신 yourself 김일성대국의 예언 그대로 우리 조국은 무궁무로 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기네 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피나크리
기네 공화국 대통령
알 파 끈 데 각 하

나는 당신이 기네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되는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호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총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시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99 (2010)년 12월 6일 평양

전자도서관이 일떠선 사연

오늘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은 도서 검색으로부터 도서 및 자료열람, 강의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에 의하여 진행되는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에서 최첨단과학기술의 세계를 접경해나가고있다.

이것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자랑한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발전에서 기본은 주제적범위에 틀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혁명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과학기술을 발전 시키는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이곳을 찾으신것은 주제 90 (2001)년 9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올해에 들어와 대학에 관한 보고를 보셨다고, 이번에도 로씨야방향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면서 그에 대하여 생각하였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

보시였다. 당시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과목별로는 사회적정보와 발전의 기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개발한 프로그램들은 사람들과서 호응이 대단하였다.

하기에 대학원생들의 가슴가슴은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세차게 높여졌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프로그램들의 경제적가치에 대하여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한 문제로 회색을 둘러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학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것도 필요하지만 나라의 정보산업발전에서 이바지할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서 기본은 우리 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것이라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 한다고 하시며 그 해결방도를 환히 밝혀 주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주제적 범위에 발전시켜야 하며 우리 식의 프로그램개발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본문제이라는 사상이 담겨진 그의 가르치심은 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격정으로 설레이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주제적범위에서 과학 연구사업들을 진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알아 보시였다.

대학 일군들의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이곳에서 전자도서관을 일떠세우도록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당시 대학에서 새로 건설하려고 계획하고있던 도서관은 건축설계가 잘되지 못하였었다.

건축모형을 보시며 이러한 결함은 대변에 일야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도서관에 책들을 다 채워넣자면 건물이 커야 하지만 도서관을 전자도서관으로 꾸리면 건물은 크게 짓지 않아도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도서관건설방향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이렇게 되어 김책공업종합대학에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더욱 진감있게 발전시킬수 있는 과학연구기지가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이 만연대기의 건축물로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다.

김 철 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지도하신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지도하신 10돐 기념보고회가 5일 해 주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로베린 황해남도 당위원회 책임서기, 당인물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리경남 도당위원회 비서기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89 (2000)년 12월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전투장들을 찾으며 대자연개조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나라의 모든 토지를 사회주의조선의 모범적 토지정리사업의 구상을 펼치시고 우리 식의 대규모 토지정리의 장엄한 포성을 울려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황해남도토지정리사업의 준비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강연도와 평안북도의 토지정리사업은 경험을 살려 황해남도에

토지정리사업을 통이 크게 잘 해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절세위인의 코나르 사랑과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대내 인민들과 인민군인들, 동맹국인들이 토지정리전투장들마다에서 애국의 발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천지개벽을 가져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2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울창물만한 폐기물들을 드넓은 구역포진으로 변모시키고 수많은 용배수들과 구조물들을 일떠세웠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방대한 토지가 훌륭히 정리됨으로써 서해북방 황해남도는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었다고 말하였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일으켜 토지정리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감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황해남도에 깃들여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알곡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모두가 불굴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투철한 수평결사옹위정신으로

생동한 자료들을 갖추어놓고 2.8비발문련합 기업소 가성소다지장 갑조직에서 합일의 녀성영웅 김경숙동지의 투철한 수평결사옹위정신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우도록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당시 대학에서 새로 건설하려고 계획하고있던 도서관은 건축설계가 잘되지 못하였었다. 건축모형을 보시며 이러한 결함은 대변에 일야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도서관에 책들을 다 채워넣자면 건물

이것이 담겨진 그의 가르치심은 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격정으로 설레이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주제적범위에서 과학 연구사업들을 진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알아 보시였다. 대학 일군들의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이곳에서 전자도서관을 일떠세우도록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당시 대학에서 새로 건설하려고 계획하고있던 도서관은 건축설계가 잘되지 못하였었다. 건축모형을 보시며 이러한 결함은 대변에 일야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도서관에 책들을 다 채워넣자면 건물



위대한 수령님의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은... (Caption text describing the image as a symbol of the revolutionary spirit of the leader.)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한 올해에 당사업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킨 정치사상공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일꾼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최후돌격이 벌어지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총동원, 총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사람들의 심장속에 혁명의 붉은 피, 애국의 더운 피가 펄펄 끓어번지게 하여야 합니다.》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주제 99 (2010)년은 우리 당건설과 주체혁명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에 쌓아 올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한 변이 난해, 위대한 전환의 해였다.

위대한 항도자인 당의 현명하신 령도기에 우리 조국은 강성대국승리의 날이 눈앞에 보이는 격동적인 시대에 들어섰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장건 65돐을 김일성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낸 올해에 천만군민의 정신력은 비상히 강화되었으며 조국의 방방곡곡에서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하늘향을 진감하였다.

올해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동원,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공세를 벌리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대고조적전장마다에서 승리의 개기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였다.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으로 들끓는 전투현장으로!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꾼들의 사업기공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총공격전의 기수, 진격의 나팔수가 되어 대중의 심장속에 혁명의 붉은 피, 애국의 더운 피가 펄펄 끓어번지게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화신적으로 벌리었다.

지난 5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비바람피뢰로 강철 1직장의 용광로가 위험에 처하여 생산을 멈추지 않았던 안철 위급한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였다.

로를 살려내기가 못내는가 하는 긴장한 시간이 한초간도 흘렀다.

이때 보수전투에 동원된 일꾼들과 당원들과 로동자들의 심장을 총동 울려주는 연합기업소당원회의 일꾼들의 목소리가 전투현장에 메아리쳤다.

우리모두 명심하자. 지난해 12월 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려 걱정의 눈물로 흘리며 보답의 맹세를 다진 우리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철의 로동계급을 지켜보고계신다. 19만대능력을 뛰어넘어 27만의 선철생산으로 조선로동계급

의 본래를 보여준 그대의 그 정신과 기백으로 용광로를 구원하자. 격동적인 정치사업은 보수전투에 동원된 당원들과 로동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용광로를 복구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경제선동의 목소리가 천장을 들끓었다. 단 몇시간만에 용광로에서 다시 쇠물이 끓기 시작하자 일꾼들과 용해공들은 서로 열싸우고 평양하늘가를 우리르며 눈금을 적시었다.

어찌 이들뿐인가.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과 경공업, 농업,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고조적전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실천과정을 통하여 열혈의 애국투사, 정신력의 강자, 자력갱생의 선구자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마음과 의사업, 감정과 의사업으로 실속있게 짜고쳤다.

대고조적전장전장에 펼쳐졌던 격동적인 화폭을 잊을수 없다.

수심만m의 흙과 막물을 날라다 3호방조제를 확장보강하는 공사는 위대한 장군님께 맹세다전대로 대고조적전장전장공사를 끝내기가 못 끝내는가 하는 판단적인 문제였다.

제기된 긴장한 수송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가.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당원회의 일꾼들은 위에서 운수수단을 대충것을 바란것이 아니라 골짜기운전공들과 자동차운전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켜 수송문제를 풀기로 결심하였다. 화신적정치사업이 벌어졌다. 당원회의일꾼들은 운전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다니면서 대고조적전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실 그날을 그리며 걸사전을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분연히 일떠섰다. 광란하는 자연의 횡포를 이겨내며 이들은 하루에 1000여리를 내달릴 겹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섰다. 건설자들은 엄숙한 추위속에서도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어 한달동안에 마찰이구간에 방대한 땅의 막물과 흙을 쏟아붓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만년제방은 이렇듯 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쌓아지고 다져졌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사회주의경쟁을 정신력발동의 모솔로 들어치고 모든 단위들에서 경쟁열풍이 일어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강연선전, 직판선동, 구두선동을 정신이 번쩍들게 진행하였으며 기술예술선동대회를 집중적으로 벌려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과 전투장을 활화산의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였다.

—승리의 시간이 흐른다. 강성대국을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솟구쳐!—

이런 선념의 불길이 최철, 김철, 강선, 성강, 남동, 봉선에서 세차게 타올랐고 모든 단위들이 강성대국을 향한 경쟁주로, 승리의 경승주로에 당당히 들어서서 대박, 대혁신을 일으켰다.

뜻깊은 올해에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모든 초소마다에서 세차게 타오른 혁명적대고조의 거대한 불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근대와 인민을 믿고 지켜주신 사랑과 믿음의 불화하여 장군님의 믿음에 보답하려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의 불꽃이다.

그렇다. 정신력발동을 보검으로 물러낸 승리를 안아온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올해의 성과를 보다 큰 승리를 위한 도약대로 삼고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강성대국승리의 날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글 쓴사기자 최일호
사진 쓴사기자 강정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꾼들은 승풍기로 로안에 바람을 불어넣어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듯이 정치사업의 원바람을 일으켜 당이 지피준 대고조의 불길이 모든 부문, 모든 초소마다에서 더욱 거세하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장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쟁열풍에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올해경쟁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중앙과 지방의 당일꾼들은 열격전의 제 1번수가 되어 승풍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쳤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 승풍기가 되자!
우리의 모든 당일꾼들은 이런 투쟁목표를 세우고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총동원, 총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었다.

김철의 당일꾼들부터 대고조의 기발을 높이 들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생산자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어 그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킴으로써 주체철생산체제완성이라는 대승리를 안아왔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대중속에서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주체철생산능력을 높이고 당이 제시한 선철과 강철, 압연강제생산목표를 기어 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전력공업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력발전소들에 힘을 집중하면서 회전발전소와 같은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용이 크게 벌리었다. 농업의 식량인 식판을 더 많이 캐어 발전소들과 공장, 기업소에 보내줄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가슴깊이 새긴 승진, 덕천, 개

천, 안주, 북창지구를 비롯한 석탄공업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대중속에서 나라의 동맥을 지켜 선 초병으로서의 높은 책임의식을 지니고 수송혁명적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리도록 하였다.

기계공업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최철단과를 위한 과감한 투쟁에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또한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자체의 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투쟁을 실속있게 벌리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2.8비발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학공업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대중속에서 화학비료와 기초화학제품생산에 결정적으로 힘있게 벌리었다.

평양방직공장, 박천견직공장과 당일꾼들은 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높이고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으로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농업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당의 농업혁명명령을 빛나게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기 위한 투쟁으로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올해 각급 당일꾼들은 대고조적전장에 뛰어들어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키는 승풍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함으로써 온 나라에 창조의 열풍, 비약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켰다.

본사기자 최시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인민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의 날과 달들에 높이 울린 시대의 메아리가 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다.

인민생활대고조를 올해의 총적투쟁목표로 제시하시고 개진된 항산호쟁을 찾으신 그날에는 일꾼들에게 이 구호에 단겨져 있는 깊은 뜻을 다시금 새겨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주인 경애하는 장군님. 올해에도 인민을 위한 헌신의 천만리길을 끊임없이 이어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은 맞추며 온 나라 당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었다.

올해 각급 당조직의 일꾼들은 대중속에서 깊이 들어가 고락을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보다 윤택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군중에서 선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자. 이것이 어버이수령님의 이념

위천사상을 그대로 구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장의 박동에 순결을 맞추고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려는 각급 당일꾼들의 심장속에 고동친 맹세였다.

이런 의지와 각오를 안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당원회의 일꾼들은 대중속에서 깊이 들어가 민심을 알고 그에 맞는 당사업을 착신하게 벌려 토대들이 마련되었다.

시, 군당조직들에서는 주인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개선하며 현대적인 살림집건설을 다그쳐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부모없는 중증원들과 아이들의 천부고 되고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천자식, 만행, 만누이가 되어 남모르는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던 나날들에 각급 당일꾼들의 가슴속에 차오른것은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을 걸어가려는 값은 삶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참으로 올해는 당이 제시한 이 구호를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 실천행동의 구호로 삼고 투쟁해온 당일꾼들의 헌신으로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결실을 맺었으며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림현숙

대고조의 1번수가 되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꾼들은 승풍기로 로안에 바람을 불어넣어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듯이 정치사업의 원바람을 일으켜 당이 지피준 대고조의 불길이 모든 부문, 모든 초소마다에서 더욱 거세하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장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쟁열풍에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올해경쟁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중앙과 지방의 당일꾼들은 열격전의 제 1번수가 되어 승풍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쳤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 승풍기가 되자!
우리의 모든 당일꾼들은 이런 투쟁목표를 세우고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총동원, 총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었다.

김철의 당일꾼들부터 대고조의 기발을 높이 들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생산자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어 그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킴으로써 주체철생산체제완성이라는 대승리를 안아왔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대중속에서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주체철생산능력을 높이고 당이 제시한 선철과 강철, 압연강제생산목표를 기어 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전력공업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력발전소들에 힘을 집중하면서 회전발전소와 같은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용이 크게 벌리었다. 농업의 식량인 식판을 더 많이 캐어 발전소들과 공장, 기업소에 보내줄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가슴깊이 새긴 승진, 덕천, 개

당세포를 전투적인 대오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꾼들은 승풍기로 로안에 바람을 불어넣어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듯이 정치사업의 원바람을 일으켜 당이 지피준 대고조의 불길이 모든 부문, 모든 초소마다에서 더욱 거세하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장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쟁열풍에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올해경쟁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중앙과 지방의 당일꾼들은 열격전의 제 1번수가 되어 승풍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쳤다.

김철의 당일꾼들부터 대고조의 기발을 높이 들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생산자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어 그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킴으로써 주체철생산체제완성이라는 대승리를 안아왔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대중속에서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주체철생산능력을 높이고 당이 제시한 선철과 강철, 압연강제생산목표를 기어 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전력공업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력발전소들에 힘을 집중하면서 회전발전소와 같은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용이 크게 벌리었다. 농업의 식량인 식판을 더 많이 캐어 발전소들과 공장, 기업소에 보내줄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가슴깊이 새긴 승진, 덕천, 개

선봉투사의 영예를 높이 떨치며

올해의 총진군대오의 앞장에 선 언해 대고조의 북소리를 남받쳐 울리며 기발되고 나가는 능숙한 정치활동가, 용맹한 돌격투사들이 우리의 미려운 조선로동당원들이 서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이란 어떤 어려운 일에서도 균중의 앞장에 서며 남보다 사선도 먼저 헤쳐나가는 혁명가입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 가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키우신 8명 당원들이 있다. 나라의 산소분리공업장설의 앞장에서서 조국의 미래를 자랑스럽게 설계하던 그때처럼 젊음을 피웠는 그들, 대형산소분리기 생산의 주요공정들을 하나씩 맡아가고 고문을 피고 교란이 되어 생산선투를 주도해나가는 그들에게 어느날 일꾼들이 그 나이에 힘들지 않는가고 물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우리야 당원들이 아니요.

내 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길을 걸고 해주시요!》

결코 편안히 살줄 몰라서가 아니다. 자나깨나 어버이장군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스스로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가장 어려운 곳에 서슴없이 한몸을 내던 락원의 8명 당원들, 이틀이 야말로 당원은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산 모범으로 보여준 당원들의 진형이다. 그래서 인민이 존경하고 조국이 자랑하며 력사가 기억하는 것이다. 어찌 이들만이겠는가. 철의 기차, 김철과 강선의 로동계급, 제련의 파루들, 사회주의협동농장이 가꾸어가는 농업근로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의 모든 당원들이 이런 애국총정를 안고 정초부러 돌격전의 최후방, 성공의 밑바닥이 되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길을 앞장에서 걸었다.

그렇다. 어머니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 길에 뚜렷한 삶의 흔적을 남기는 이런 비

대용 당원들이 내 조국을 받드는 초석을 이루었기에 우리 당이 이처럼 굳건한것이 아닌가.

《당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옵고서 우리 당 총비서로서 높이 추대하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저의 가슴은 지금 어머니정신을 위해, 조국을 위해 심장을 장거리 바쳐갈 일념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설사 이 길에서 영영 쓰러져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하여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기 전에는 절대로 전투장소를 뜨지 않겠다는것을 결의 합니다.》

이것은 최철발전소건설에서 열린 당대표자회에서 장군님당원이 터친 불같은 토로이다. 선군혁명의 기풍이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한 당원의 눈썹은 심장의 박동소리에 우리는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격구를 열어나가는 온 나라 당원들의 신념과 의지를 새겨안는다.

정신력만 강하면 맨주먹으로 쇠물을 끊일수 있고 빈터우에

사락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백철불굴의 투지를 안고 쇠물 차치수를 높이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온 강선의 2호 초고전력전기로 달린용해공정의 일본새는 또 얼마나 고결한 것인가.

그렇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이 보람찬 이념을 향훈으로 수놓으며 선군혁명투진군대오의 맨 앞장에서 달려왔다.

당원들이여! 우리 조국역사에서 천금같이 귀중한 한초한 초가 흘러가고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는 전제 당원들에게 수령사사용어의 전위투사, 대고조적전의 일심용사가 되고 열혈한 군중동원자가 될것을 열혈히 호소하였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조선로동당원이라는 승호한 자국을 안고 애국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보여주는 당원들이 무성한 숲을 이룰 때 강성대국승리의 날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세차게 타오른 3대혁명불은기생취운동의 불길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와 당장건 65돐을 뜻깊게 맞이한 2010년!

다시한번 경쟁열풍에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질풍같이 달려온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도 3대혁명불은기생취운동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타오르게 하듯이 대고조를 벌림으로써 기생취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혁명기, 세폭의 붉은기가 총진군대오에 더욱 힘차게 나뭇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불은기생취운동을 실속있게 벌려 대고조전투장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이 일어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3대혁명불은기생취운동에 걸기한 단위들에서는 높이 세운 전투적회들을 반영하여 3대혁명불은기생취운동 결의목표를 끊임없이 대추경진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리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118개 단위에서 3중 및 2중 3대혁명불은기, 580여개 단위가 3대혁명불은기를 생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8만 1400여명의 3대혁명기수들이 배출되었다.

지난해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책제철련합기

업적단위 당세포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당세포들의 전투력을 높인 것이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도를 받은 단위들의 당세포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그를 일반화하는 사업을 짜고들어 일터마다에서 혁신과 비약의 불길이 거세하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발련합기업소, 단천지구의 공장, 기업소들과 광산, 제련공장,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현지도단위 당조직들에서는 당세포들이 깊어 들어갈 당원들의 당세포조직과

업적단위 당세포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당세포들의 전투력을 높인 것이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도를 받은 단위들의 당세포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그를 일반화하는 사업을 짜고들어 일터마다에서 혁신과 비약의 불길이 거세하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발련합기업소, 단천지구의 공장, 기업소들과 광산, 제련공장,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현지도단위 당조직들에서는 당세포들이 깊어 들어갈 당원들의 당세포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모든 당원들이 올해의 총돌격전에서 들쭉대, 선봉대의 영예를 높이 떨쳐나가게 하였다.

평양시와 평안북도, 함경남도 불을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모든 당세포를 총성의 세포로!

참으로 올해는 모든 당조직들이 당이 제시한 이 구호를 틈틈히 틀어쥐고 당세포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한 승리의 한해였다.

본사기자 송창운

근로단체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현안은 근로단체를 당의 령도에 끌어들여 충실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만드는것입니다.》

대고조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에서는 근로단체조직들이 동맹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경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

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근로단체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도록 하였다.

김철정사회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꾼들의 역할이 어드메없이 높았다.

혁명적대고조의 돌격대인 청년들이 풀어야 진군의 발걸음 소리가 더욱 세차게 울려나올수 있다는것을 자각한 이곳 일꾼들은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사업을 세차게 추진하였다. 이곳 일꾼들은 각급 농공조직에서 단위위협사회의청년동맹을 힘있게 벌려 민족과 온통, 동북과 선안, 삼지강 등 앞선 단

주의경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기상이 나뭇치게 하였다. 최철발전소건설장에 나간 일꾼들은 경쟁속에서 정신력발동의 모솔이 있고 집단적혁신의 열쇠가 있다고 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경쟁열풍을 드세게 차게 일으켰다.

농공맹장위원회 일꾼들도 농업부문에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추진하였다. 이곳 일꾼들은 각급 농공조직에서 단위위협사회의청년동맹을 힘있게 벌려 민족과 온통, 동북과 선안, 삼지강 등 앞선 단

위들을 따라잡기 위한 성과를 확대하였다.

내명중앙위원회 일꾼들의 사업도 활기있게 진행되었다. 청진시안의 내명조직들에서는 내명원들이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가 철강제증산에 적극 기여하게 하였다. 올해에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내명조직과 대고조적전장대국건설에 적극 기여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참으로 당대표자회와 당장건 65돐을 뜻깊게 기념한 올해는 근로단체조직들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된 긍지높은 한해였다.
본사기자 전경서



3대혁명불은기생취운동 영예등극자에 또 한명의 혁신자!
—안주는 하피복공장에서—
본사기자 정운

위대한 아버지의 품에 안길 그날을 그리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화원에서 사람들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긍지높은 삶을 누리는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는 남녘인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울려나오고있다.

《정양으로 가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품으로 가자!》

《민중에서 대한 김정일명도자님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은 만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도 원명도 다그쳐 말기게 하는 원명으로 되고있으며 백만이 모이고 천만이 뭉쳐도 한마음한뜻으로 동경하는 친화력으로 되고 있다.》

《정령 사랑과 믿음의 화신 이신 김정일명도자님의 품은 이북민중만이 아니라 온 겨레가 안고 싶어 할 품이다.》

이것은 서울의 마포구에서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던진 신념의 목소리였다.

민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이 심장의 뱃짐, 그것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로 우러러 따르며 그이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갈 행복의 그날을 품는 남녘인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그대로 되새기고있다.

이 세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인민들의 사랑을 참답게 실현시켜주는 사회, 조국대중의 온갖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나라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공화국밖에 없다. 하기에 남녘겨레들은 위대한 태양의 빛바람에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는 공화국을 팔없이 동경하며 찬란한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는것이다.

창원의 전자부품분회사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북에서는 누구나 안정된 직업을 보장받아 행복하게 살고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국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뿐인가.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병치료를 받는것도 모두 무료이다. 이것이 바로 민중의 천국이 아닌가.

남조선의 한 진보단체 회원은 자기의 글에서 이 세상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많지만 김정일명도자님의 민족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에는 비길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목숨바쳐 싸우는 것은 민족성원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데 대도 김정일명도자님께서는 애국애족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신 사람이셨고 그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주시며 세상을 떠난 후에도 뜨거우 사랑을 기울이신다. 그 사랑에 감하면 누구나 절해고도에 홀로 있어도, 장렬한 최후의 순간에도 주저 없이, 후회없이 그것을 지켜 오직 충정의 한길로만 간다.》

김정일명도자님께서는 명명도 미베도 다 말기로 영연히 그 길을 간다.》

대구의 한 지식인은 《이남민중이 안겨살아야 할 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명도자님께서는 자신의 하느님이 바로 민중이라 하시며 정사를 펴시는데서 언제나 민중을 먼저 생각하고 민족의 기쁨과 아픔을 자신의 기쁨과 아픔으로 여기신다.》

참말로 이북은 민족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김정일명도자님의 인덕정치로 사람들이 공상으로만 그려보던 리상이 현실로 꽃피는 인민의 리상사회이다. 하루빨리 그 품속에 안기고 싶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아버지로 우러러 따르는 남녘인민들의 마음은 이처럼 열렬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명도아래 우리 공화국이 위대한 신군의 조국으로 세상에 그 위용을 높이 떨칠수 있도록 하는 자애로운 품을 절절히 그리는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연세대학교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동료교수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받은 느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된 세상에서 조국의 미래와 후손, 만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 고난의 인덕을 넘어 강대국

의 명마루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이북민중의 모습은 그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행복의 꽃, 희망의 꽃송이라 해야 할것이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음으로 만년을 이겨내며 찬란할 미래를 향해가는 이북민중의 모습을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며 아름다운 한껏 자랑하는 천만송이 꽃에 어이 비기지 않을수 있겠는가. 태양과 같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베푸시는 따뜻한 인덕정치가 있어 이북의 민중화원은 그릇듯 아름다울것이다.》

《그 누가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태양의 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안기는것이.》라고 대답할것이다.》

《그렇다. 내 소원은 오직 하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뿐이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르는것은 움직일 수 없는 법칙이다. 어서빨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에는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따르는 남녘인민들의 마음이 그 어떤 힘으로도 막지 못한다. 본사기자 김현철

가다듬게 되었다.》

서울의 한 통일운동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렇게 격조높이 말했다.

《우리 겨레와 만민의 축복속에 머지않아 우리 조국의 통일일은 이룩되게 될것이다. 우리는 그 희망찬 앞날을 바라보며 자주를 위해, 민주를 위해, 통일을 위해, 민족의 미래를 위해 백두의 천황위인이고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김정일명도자님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

《그 누가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태양의 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안기는것이.》라고 대답할것이다.》

《그렇다. 내 소원은 오직 하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뿐이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르는것은 움직일 수 없는 법칙이다. 어서빨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에는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따르는 남녘인민들의 마음이 그 어떤 힘으로도 막지 못한다. 본사기자 김현철

해돋이를 보시면서

주제 76 (1987)년 8월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바다가서서 아침해돋이를 맞이하시는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조국이 통일되면 한나시에 올라 아침해돋이를 맞이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조국은 백두산천지로부터 한나산 백루담까지 한지맥으로 잇닿아있을 것이라고 하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절박한

사업과 생활의 고귀한 지침

통일과 잇닿아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업은 조국통일로 지향시켜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계속하여 그리시면서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고,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라고,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사랑하는 법이며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가능한다고 불가능이란 없다고,

투철한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있는 직후 한 재미동포를 만나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사면적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엔 북남평화상처음으로 북과 남 수뇌들의 상봉을 실현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고, 이것은

파업을 없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인민이 애국의 한 마음으로 단합하면 얼마든지 남조선에서 지세를 끌어내고 조국을 통일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아침해돋이를 바라보시면서 조국통일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일을 더 잘하여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한시때 조국통일을 생각하며 자기의 모든 노력을 나라의 통일을 실현시키는 데로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우리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의 고귀한 지침으로 되었다.

안에도 조선의 통일은 조선민족이 주인이 되어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한다고 명백히 밝히셨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북남공동선언에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 조항이 기본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본사기자

해돋이를 보시면서

주제 76 (1987)년 8월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바다가서서 아침해돋이를 맞이하시는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조국이 통일되면 한나시에 올라 아침해돋이를 맞이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조국은 백두산천지로부터 한나산 백루담까지 한지맥으로 잇닿아있을 것이라고 하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절박한

사업과 생활의 고귀한 지침

통일과 잇닿아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업은 조국통일로 지향시켜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계속하여 그리시면서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고,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라고,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사랑하는 법이며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가능한다고 불가능이란 없다고,

투철한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있는 직후 한 재미동포를 만나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사면적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엔 북남평화상처음으로 북과 남 수뇌들의 상봉을 실현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고, 이것은

총련새세대일군대표단 11월호 상봉

【평양 12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사회주의조국에 제류하고있는 김일성 통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 부위원장 등 단장으로서 하는 총련새세대일군대표단이 7일 비전향장기수 리공순동지와 상봉하였다.

리공순동지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필승의

불레쥬 <통일> 11월호 발행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가 불레쥬 <통일> 11월호를 발행하였다.

불레쥬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명도자의 사전을 모시었다.

불레쥬는 《조선로동당창건 65주년을 성대히 기념》이라는 표제에 특집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5주년을 축하하고 애국애족의 열매를 맺고 대외경제와 수출증진 《아리랑》이 혁명의 우리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불레쥬는

통일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중지를 요구

조선로동당창건 65주년을 축하하고 애국애족의 열매를 맺고 대외경제와 수출증진 《아리랑》이 혁명의 우리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불레쥬는

조선로동당창건 65주년을 축하하고 애국애족의 열매를 맺고 대외경제와 수출증진 《아리랑》이 혁명의 우리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불레쥬는

조선로동당창건 65주년을 축하하고 애국애족의 열매를 맺고 대외경제와 수출증진 《아리랑》이 혁명의 우리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불레쥬는

매국협상을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소식을 들은 남조선보수당국의 굴욕적인 사대매국책들은 각계층의 치솟는 항의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소고기문제》는 다른 문제이므로 결코 양보하지 않았다. 《공인하던 보수매담》 《자유무역협정》을 기어이 성사시키기 위해 자동차시장개방문제에 이어 미국소고기수입증을 위한 비밀협상을 강행한 사실에 접한 남조선인민들은 분노로 치를 떨면서 강력한 항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얼마전 남조선의 참여연대는 논평을 발표하여 미국과 미친소고기수입을 위한 굴욕적인 추가협상을 매달린 당국을 규탄하였다. 논평에서 단체는 지난 2008년 미국소고기수입협상을 반대하여 온 남녘평을 뒤흔든 각계층의 초렬투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리명박 《정권》이 추가협상을 벌여놓고 앉았음을 양보한데 이어 소고기시장을 또다시 추가개방하려는 책동에 매달

남조선의 파쇼악법의 철폐를 주장

남조선의 파쇼악법을 철폐할 것을 주장

남조선의 파쇼악법을 철폐할 것을 주장

남조선의 파쇼악법을 철폐할 것을 주장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

조선청년들의 본패를 보여주리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이 바라보고있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조국의 통일이 결코 동족간의 대결과 전쟁이 아니다. 하기에 해외의 우리 청년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투쟁에서 통일애국운동의 선봉대,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의 인내력과 평화애호의지를 오만하지 말아야 하며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피할수 없는 우리 청년들의 정을 도발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보이고있다. 날로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미국과

녀성들의 힘을 하나로 합쳐

남조선피괴들과 그와 야합한 미제호전파들의 군사적도발행동이 날로 강화되고있으니 정대적분을 갈수록 없다. 지금에 와서는 하루없이 그 무슨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년과 고려민주평화화국창립만년기념 30돌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겨레의 통일열망과 의지는 그토록 열렬했었고 우리 공화국은 어떻게 하나 약화된 북남관계를 풀고 민족의 단합과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사상과 노력을 다하였었다.

그런데 남조선보수매담의 태도는 어떠한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칠 야망이 없는

고향을 그리며 굳게 다진 통일외지

누구에게나 고향은 애뜻한 정을 불러일으킨다. 고향을 사랑하면서 그곳의 혈육들과 이웃들을 그리는 마음은 인간의 감정이자,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잊지 못하는것이며 자기 살붙이처럼 살의 한부분은 소중히 간직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명도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선민족은 혈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디다.》

얼마전 우리는 동대원구역 동진3동 10인민반에 사는 최순녀녀성을 소개한 편지를 받게 되었다.

《남조선에 있는 고향을 떠나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온지 60년이 되었습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고향을 떠났었는데 사는 손자, 손녀를 거느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고향의 소식조차 알수 없는지 지수상조 어디에 이처럼 가슴아픈 비극현실이 또 있었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편지에는 고향에 대한 사랑과 고향향을 짓밟고있는 현수들에게 대한 증오의 불길이 이글거려였다.

최순녀녀성의 고향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상리이다. 외세의 남조선강점과 사대매국노들의 반동행위를 조여오는 고향을 회복해보려는 고사하고 소신 견지하지 못

당국의 군사비증강책동을 규탄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1월 30일 서울에서 107차 평화당 축집회를 가지고 피괴군부당명 중앙위원회인 의정대준은 모든 동맹원들이 정세에 준엄할수록 필승의 신심과 만만한 투지를 안고 강성대국건설의 대고조전투를가다에서 조선청년들의 전투적기상과 불타는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짜고들것이다. 하여 백두명장의 손길아래 자라난 조선청년들의 본래가 과연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부장 허영률

대결을 부추기는 보수언론 단죄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진보연대, 민주인문사민련합이 3일 《KBS》방송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수언론의 외곡도발행위를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최근 《KBS》방송이 여론을 왜곡하고 남북간 군사적대결과 전쟁을 선동하는 보도를 일삼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전쟁을 불러오는 호전적 망언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4일 피괴군부호전파의 반공파괴대결망언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3일 김판진이라는자가 국방부 장관인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그 무슨 《오징어》를 퍼들면서 북을 항공기로 공격할수 있다는니 뉘나 하고

고향을 그리며 굳게 다진 통일외지

누구에게나 고향은 애뜻한 정을 불러일으킨다. 고향을 사랑하면서 그곳의 혈육들과 이웃들을 그리는 마음은 인간의 감정이자,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잊지 못하는것이며 자기 살붙이처럼 살의 한부분은 소중히 간직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명도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선민족은 혈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디다.》

얼마전 우리는 동대원구역 동진3동 10인민반에 사는 최순녀녀성을 소개한 편지를 받게 되었다.

《남조선에 있는 고향을 떠나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온지 60년이 되었습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고향을 떠났었는데 사는 손자, 손녀를 거느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고향의 소식조차 알수 없는지 지수상조 어디에 이처럼 가슴아픈 비극현실이 또 있었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편지에는 고향에 대한 사랑과 고향향을 짓밟고있는 현수들에게 대한 증오의 불길이 이글거려였다.

최순녀녀성의 고향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상리이다. 외세의 남조선강점과 사대매국노들의 반동행위를 조여오는 고향을 회복해보려는 고사하고 소신 견지하지 못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길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길이라것을 더욱 자각하면서 30여년간 후대교육사업에 모든 열정과 지혜를 다 바치였다.

최순녀녀성은 위대한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 직업적인 혁명가로서 한생을 빛내이고 아들딸모두를 대학출신자 시킬수 있었다. 지금 그는 팔손을 바라보고있다.

지금 북과 남에 최순녀녀성과 같이 분열의 장벽이 가로막혀 혈육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야말로 분열의 고통은 끝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이 고고통이다. 그 가슴은 비극적현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더라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해야 한다.

고향을 그리며 최순녀녀성의 마음은 단초한 향수가 아니다. 그것은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이고 의지이다. 최순녀녀성만이 아닌 우리 인민모두가 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의의의지를 간직하고 있다.

최순녀녀성의 편지는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도 통일의 마지막 순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명도를 받드는 힘이 한몸 다 바쳐나가겠다는 불타는 맹세에 가득차있었다는 이야기로 끝났다.

하지만 그만이 아닌 온 겨레가 더불어 통일의 합성이 귀천에 울려와 우리는 편지의 글줄에서 쉽게 눈물을 뺄수 없었다.

본사기자 송영석

구역역 련이어 발생

남조선 《MBC》, 《KBS》방송들에 의하면 경상북도 안동시의 농가들에서 구역역이 련이어 발생하여 5일 피해지역이 22곳으로 늘어났다.

구역역은 안동에서 20여km 떨어진 메천군 영주읍리대리로 급격히 확대되어 피해지역이 계속 늘어났으므로 예상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